

익투스

네로 황제 때, 로마의 젊고 유능한 개선장군이며 호민관인 마커스 비니키우스는 은퇴한 장군인 플라티우스의 저택에 인질로 잡혀있지만 양팔로 입적한 아름다운 리지안 공주 리지아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버린다. 그러한 그를 리지아도 내심 호감을 갖는다. 어느날 리지아가 벤치에 앉아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말없이 단순한 물고기(익투스)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데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뒤에서 물고기 그림을 보며 나를 생각하고 그린 것이냐고 묻는다. 물론 그는 이 물고기 그림의 뜻을 알 리가 없었다. 폴란드 출신 소설가 헨릭 센키비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쿠오바디스’라는 50년대 종교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익투스라는 단어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생각했다. 즉, 아래의 고백의 첫 글자만을 따면 바로 익투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해를 받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상대방이 기독교인인가를 알기 위해 물고기 그림의 반원을 그리면 그것을 본 사람이 반원을 채우면서 상대방이 교인인지 확인했고 물고기를 그린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기독교인들이 숨어 사는 카타콤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Ιησους	이에수스	예수
Χριστος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θεου	데우	하나님의
υιος	취오스	아들
σωτηρ	소테르	구원자

즉 익투스는 위의 라틴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것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主)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만약에 마커스가 이 그림의 뜻을 알았다면 리지아는 그의 사랑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영화는 끝이 났을 것이다. 결국 마커스는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 박해시대 누가 고발자인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물고기 그림은 교인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던 물고기 싸인이 이콘화의 효시이다. 모든 이콘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후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뒤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생성되어 온 한정된 성화를 이콘이라고 부르게 된다. 서방교회는 사실 이콘보다는 성상이 위주가 되어 많은 조각 작품을 남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동서방 교회 모두 이콘을 제작 사용하며 신심과 신앙심을 북돋고 있다.

익투스의 단순한 형태에서 갖가지 채색을 통해 이콘 제작은 더욱 상징성을 부여해 나간다. 그러나 이콘은 단순히 상징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조의 대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콘화는 세속적 견지에서 본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진부한 감정들을 지우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추구해 나간다. 온갖 세속의 복잡한 번뇌에서도 자유로워지며 여기서 마음의 내적 침묵과 평온, 동방교회의 중요 영성이라 할 수 있는 *‘헤시키즘’ (hesykism)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방교회의 이콘들은 즉시 감동을 주는 성화들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바라보기가 다소 어렵다. 그러나 일단 그 내면의 깊이에 맞닿아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한 점의 이콘 앞에 서더라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관조하면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콘'은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잡이요,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신비의 미인' 것이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간 중심적인 세속적인 성화가, 문맹자가 많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직설적이고 사실적 성화에 식상해진 신앙인들은 다시 동서방교회를 불문하고 단순하지만 엄격하고 절제된 이콘화에서 더욱 고양된 영성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세속적 삶에 지친 교인들 마음 속에 침잠되어 있던 신앙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마지막 한가지, 이콘화에 흔히 나타나는 ‘역원근법’은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뒤에 있건 앞에 있건 중요한 인물이나 사물은 크게 그린다는 것이 역원근법의 핵심이다. 후기 인상파의 세잔을 비롯해 피카소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야수파의 태두 마티스가 러시아 정교회의 이콘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한다. 이것 또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온 원근법에 식상한 화가들의 시각적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헤시키즘은 하느님과 의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헤시키아를 갈망하는 하나의 영적 체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희랍어 헤시키아(hesikia)란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라틴어로 고요, 평화, 평정, 침묵 등으로 번역되는 헤시키아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관상에 필요한 영혼의 상태로서의 고요와 평정. 둘째, 세상으로부터의 이탈과 고독의 조건으로서의 고요. 한마디로 헤시키아는 참된 기도와 진정한 관상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독과 침묵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는 기도를 위한 하나의 투쟁이다. 13세기 중엽 아토스 산의 니케포로스(Nikephoros) 이후 헤시키즘이란 단어는 기도의 방법으로 정의 되었다.(수도승 영성에서)

글/김웅배 안드레아

주님 부활
대축일

2023년
04월 0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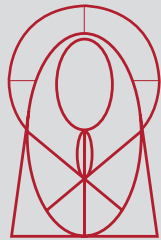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바르톨로메오 스캐도니 〈무덤에서의 마리아들〉 1613년,
파르마 국립박물관, 이탈리아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도행전10,34ㄱ,37ㄴ-43
#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1-4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회군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요한 복음 20,1-9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성가번호	입당 135 봉헌 129 성체 130 파견 134

성당 소식

✿ 에디슨 한인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백봉화 - 나채국(제노)
- 권숙자(요안나) - 최종인(세레나),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오소연(마리아) - 오용덕(헨리코)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은옥자(페르페뚜아) - 송진영(마리스텔라)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오용덕(헨리코), 오경숙(세실리아) 가정 - 성가대
- 황선주(요셉피나) - 성가대
- 채희백(바오로) 가족 - 김순옥(울리아)
- 이금주(베드로) 가족 - 김순옥(울리아)
-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울리아)
- 채젼마 - 가족
- 채로운(로운) - 가족, 정 테레사
- 오은주(로사) - 채미영(테레사), 황선주(요셉피나), 김민주(이스베리가)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 황선주(요셉피나)
- 정다이(모니카) - 한지혜(크리스티나)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63명).....\$1,333
- 2차 헌금 (교구 은퇴 성직자).....\$656
- 교무금\$2,220
 - 김영숙(3-4) 최영옥(4)이금주(4) 백상현(4)
 - 이용문(4) 최영찬(3-4) 정명숙(1-12)
 - 손영수(1-6) 한철희(3-4) 이대우(3-4)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31까지 약정 금액은 \$29,578.14 (목표금액의 79.94%)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 4월 16일: 유틸리티

✿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부활 포장마차

- 4월 9일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부활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 많이 참석하시어 각 친목단체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 봄철 성당 주변 화단 가꾸기 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유용희(울리아나) 자매님께 연락바랍니다.
- 매년 꽃밭 가꾸기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신부님께서 \$100, 오애희(울리아나) 자매님께서 \$100, 오용덕(헨리코) 형제님께서 \$100, 채희백(바오로) 형제님께서 \$200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 테네시 농장 농산물 주문

- 주문 마감: 4월 9일 (주일) 까지
- 물품 픽업: 4월 23일 (주일)
- 4월 특산품 식혜(\$18)도 있습니다.
- 미국 공동체에서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 유스그룹 주관 제 1회 OLM 탁구 토너먼트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주일) 오후 1시 친교실
- 참가비: \$5/인
- 다양한 상품과 간식이 준비되어있으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국 공동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 모든 수익금은 유스그룹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 본당 유지 관리 현황

- 친교실 주방 안쪽 핸드폰 충전기 마련
- County Fire Department 점검 후 후속 조치 중 (엘리베이터 및 화재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확립 등)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께서 성가대와 레지오 전 단원을 위해 짧은 위령 기도책을 만들어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하울 어머니 Pr. 1000차 주회함을 축하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울리안나 방진숙(테레사)

말씀 이전 준비

✿ 제1독서: 사도행전10,34ㄱ.37ㄴ-43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37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3,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찔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목상도 봉급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변환을 가져온 사건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짊어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아니었고, 곧바로 군중들 앞에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 대축일에 봉독하는 복음은 바로 빈 무덤 사화입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히 증명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에 의해 증언되는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고 받아들이는 이에게만, 곧 부활한 삶에 대한 선택과 결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에게만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물론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신앙의 진리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모셨던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을 감쌌던 아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된 이 단순한 말은 곧 그들의 삶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결단과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활 신앙 역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과 그에 대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비록 외면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분의 부활은 먼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가 됩니다.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1. 요한 복음사가가 주님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는 사건은 무엇이고, 그 증인은 누구입니까?
2.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체험한 부활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